

스포츠에서의 공정성과 평등

임 석 원*

주제분류 스포츠 윤리학

주요어 공정성, 정의, 평등, 불평등, 경기수행

요약문

공정성은 편파적이지 않은 공평성과 합리성을 뜻한다. 따라서 옳다는 의미로서 정당성이 전제되어 있는 정의의 중심개념이기도 하다. 스포츠에서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한 경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스포츠 경기가 불공정하다면 그것은 경기환경의 편파성과 인위적 부정의의 전형일 것이다. 그럼으로 공정한 경기의 수행은 규칙과 규범 그리고 제도가 공정해야 하고, 평등을 유지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스포츠에서의 평등은 공정한 경기를 위한 조건으로서 외적 환경인 기후의 조건과 경기장의 인위적 조건이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경쟁자들에게 기회의 불평등을 강제하는 불공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럼으로 본 논문은 스포츠의 공정한 경기를 위한 평등의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평등한 경쟁자들의 대우에 대하여 일별할 것이다. 고로 본 논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스포츠 경기의 평등을 강조함으로 경기와 선수들의 자발적 참여자로서 도덕성을 강조할 것이고 연구의 방향과 목적 역시 경쟁에서의 선수들을 자발적인 도덕적 차원의 경쟁자들로 대우해야 한다는데 두고 있다.

* 가톨릭 관동대학교

1. 서론

공정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성, 객관성, 합리성을 뜻한다. 그리고 평등 역시 정의의 한 속성이거나 본질적 내용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평등은 사실적 개념으로 객관적 상태를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스포츠 경기가 공정한 것은 그 경기 조건이 평등하게 유지되고 불평등한 경우는 불평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경우인 것이다. 물론 무엇을 평등한 것으로 여길 수 있으며, 그리고 불평등 하다고 했을 때 그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행이나 제도가 다양한 목표의 견지에서 평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공정성은 정당성에서 파생된 개념이며, 정당성의 개념적 구체화이다. 또한 공정성은 정의이지만 그렇다고 정의가 곧 공정은 아니다. 공정이 정의개념을 근거로 인식되는 이유는 그것이 근본적인 중요한 일차적 내용으로 하는 균형과 균등성이 자연의 현상이나 물체에 있어서 조화와 안정을 가능케 하는 요건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인간 및 사회적 관계에도 이를 적용하려고 하는데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정은 불의에 대한 응징만이 아니라 분쟁 해결 및 의사결정 그리고 자원의 배분과정에도 관련됨으로 정의로서의 공정은 정의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의로서의 공정은 당위의 개념인데 반해 평등은 사실적 개념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규범들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¹⁾ 곧 사회적인 정의의 문제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가상적 계약상황으로서 입장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평등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대우받게 되는 인간존재의 특성

1) 이영희, 『정의론』(2005), 법문사, 67쪽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등의 개념이 적용되는 세 가지 수준을 구분하면 첫째 규칙들의 공공체계로서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 경우의 평등은 본질적으로 규칙성으로서의 정의이다. 곧 규칙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평등의 의미는 평등한 기본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서 구체화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등한 정의의 보장을 받을만한 사람은 도덕적 인격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입장은 평등이 천부적인 속성이 아니라 절차적 원칙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간존재가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실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부담을 가지게 됨으로 절차상의 가정을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공정성과 평등을 정의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우선,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되기 위한 형식적 조건을 공정성의 조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평등 그리고 공정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첫째, 공정성은 옳음에 대한 규범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로 규정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비강제적이고 정보가 제공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 합의를 위한 기초로서 어느 누구도 순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방안이다. 둘째, 공정성을 보다 특수한 규범으로서 이해한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몫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타인들이 이룩해 놓은 노력의 대가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롤즈는 공정성을 규칙-지배적인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도덕적 비-결과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은 이성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잠재성을 지닌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을 존중하는 존엄성의 개념에 기원을 두고 있다.²⁾ 그렇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무가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충족되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의 강제력이 없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타당한 일반적인 도덕규범 혹은 ‘자연적 의무들’이 존재하며 이들 중 하나가 정의를 지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격체라는 개념을 결코 반영해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이라는 개념 그 자체도 훼손되고 말기 때문이다.

2. 공정성과 평등

스포츠 경기가 공정한 것은 어떤 경우인가? 그것은 평등한 경기의 조건이 평등하게 유지되고 불평등한 경우는 불평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열린 도덕성이 두 경우 중에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행위란 각자가 비슷한 여건에 처해 있다고 생각될 때 서로에 대해서 원칙을 제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렇게 해서 도달된 원칙들에 의해 규율체제로 평가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공정성의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³⁾

여기서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를 원칙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무엇을 평등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지, 그리고 불평등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불평등하게 여길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은 각각의 개별적인 관행이나 제도에 따른 다양한 목표의 견지에서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등한 기회라는 이상은 공정함이라는 이상과 분명히 결부됨으로서 시작된다. 두 사

2) J. Rawls(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13쪽.

3) 존 롤즈, 『공정으로서의 정의』(황경식 외 옮김), 서광사, 1977, 28쪽.

람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일에 더 적극인데도 출신성분 때문에 그가 배제된다면, 그것은 불공평하다.⁴⁾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구조적 목표는 경기수행 혹은 경기력에 따라 둘 이상의 참가자들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그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운동경기는 특정한 종류의 지식에 대한 추구로 나타난다. “운동 경기란 합의된 규칙들에 의해 규정된 제한들 내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질량을 이동시키는 참가자들의 상대적 능력에 대한 지식을 탐색하는 것이다.”⁵⁾

스포츠 경기는 운동수행(운동력)의 ‘변수’에 근거하여 참가자들을 측정하고 비교하며 순위를 매기려는 과학적 실험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운동수행의 평가를 가능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과학적 방법론에 따른 신뢰성은 그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연관된다. 롤랜드는 개인 내적 요건들이 동일한 관찰자에 의한 동일한 반응의 반복된 관찰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인 간의 상호 주관성의 요건들은 다른 관찰자들에 의한 동일한 반응의 반복된 관찰에 따라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⁶⁾

그리고 앞에서의 불평등한 대우의 기준은 바로 경기 수행에서의 불평등이라고 했다. 스포츠에서 불평등한 대우와 실제적 불평등간의 일치에 대한 요구는 실험에서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대한 관심과 일치한다. 다양한 종류의 이익에 대한 측정과 분배는 경기 수행을 통해 실제적 불평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만 한다.⁷⁾ 물론 평등 역시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나 만일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불평등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관련된 조

4) 브라이언 베리, 『정의론』(이용필 옮김), 신유, 1993, 277쪽.

5) S. Loland(2002), *Fair Play in Sports*, London & New York, 45쪽.

6) Ibid.

7) Ibid.

건들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절한 지식을 산출하고 타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실험에 적절한 통제가 요구된다. 그래서 경쟁의 시작과 과정에서 부적절한 불평등은 제거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제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실외 경기에서 기상 조건의 완전한 평등은 이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으로 불평등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모든 선수들은 부적절한 불평등의 제거 혹은 보상을 통해 경기력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⁸⁾

그러므로 평등한 기회는 경기수행에서의 불평등을 평가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평등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하고도 상세한 규범들이 존재하는데, 우선 평등한 기회에 대한 규범이 어떻게 경기의 시작과 과정에서 ‘외부 조건’들에 대한 규제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부적 조건'은 주로 바람이나 햇빛 혹은 강우와 같이 경쟁하는 동안의 기후적 조건들 그리고 경주 트랙의 표면이나 축구 골대간의 거리 또는 알파인 스키의 코스와 같은 경쟁적 경기장과 연관된 물리적 조건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적절한 외부적 조건들의 불평등에 대한 경쟁자들의 주관적 체험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⁹⁾

다양한 외부적 조건의 도전은 경쟁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영역별로 차이가 난다. 우선 직접적 경쟁과 간접적 경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간에 경쟁할 경우, 직접적 경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간접적 경쟁의 경우 참가자들이 개인별로 경쟁하며, 시간과 공간적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격리되어 경쟁하게 된다. 멀리뛰기, 높이뛰기, 투창, 그리고 알파인 스키 등은 모두 간접적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직접적 경쟁부터 살펴보자.

8) Ibid, 46쪽.

9) Ibid, 47쪽.

과학 실험에서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측정 도구들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스포츠 경기에서 역시 최초의 조건들은 참가자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외부적 조건들이 완벽하게 동일한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접적 경쟁에서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위치 자체가 특정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 모든 경쟁자들에게 홈경기와 원정경기에서 같은 회수의 경기를 제공하는 절차들이 공식화되어 있다. 트랙경기와 필드경기에서 그리고 테니스에서는 한 시즌 동안 여러 다른 장소에서 경주와 토너먼트가 있으며 대부분의 선수들은 적어도 한번 자신의 홈그라운드나 혹은 여기에 인접한 곳에서 시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직접적 경쟁의 조건들에서 가장 문제되는 불평등은 아마도 실외 스포츠에서의 기후 변화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통제가 될 수 없고 제거 혹은 보상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나의 극단적인 해결책은 있다. 실외 경기가 아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실내경기를 통해 불평등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다.¹⁰⁾ 결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경기력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일관된 절차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소 통제 불가능한 기후상의 불평등에 직면할 경우 그 출발점을 제비뽑기에 의해 결정하는 보다 온건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경쟁자들이 불평등하게 영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임의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접적 경쟁의 경우는 참가자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처음 외부적 조건에서의 불평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간접적 경쟁에서 경기수행의 평등한 기회를

10) Ibid.

보장하기 위한 규범은 실외 경기에서 경쟁자들이 다른 시점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¹¹⁾ 그러한 조건에서 적절한 기술과 전략적 기량의 발휘에 대한 신뢰가 어렵다. 이것은 다시 경기의 취소나 포기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외부적 조건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수용가능성의 규칙-한정적 범위는 대체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허용하도록 되어있다.¹²⁾

그렇다면 여기서 혼합적 절차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최고로 예상되는 선수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 하에서 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학적 실험’에서의 ‘오류의 원천’에 대해, 즉 최초의 조건에서의 불평등에 대하여 가장 잘 보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스포츠 경기는 최고로 예상되는 선수들과 두 번째로 예상되는 선수들, 그리고 세 번째의 선수들, 나아가 모든 참가자들의 경기력의 측정, 비교, 그리고 순위에 따른 서열화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모든 참가자들의 평등한 수행을 위한 기회의 제공”일 것이다. 위에서 개략적으로 제시된 혼합적 절차가 비록 불안정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이상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¹³⁾

간접적 경쟁에서 외부적 조건들에 직면할 때 평등 규범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11) 트랙과 필드에서 점프하고 던지는 경기에서는 바람의 변화가 경기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평가가 부정확해 질 수도 있다. 활강 스키에서 강한 바람은 경주를 불공정하고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대부분의 실외 스포츠는 비교적 정확한 수용가능성 한계로 정의해 온 것이다. 폭풍이 몰아치는 날씨는 트랙과 필드에서의 경기와 활강 스키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12) 갑작스레 등 뒤에서 부는 바람 덕분에 멀리뛰기 선수가 몇 센티미터 더 뛰게 되어 우승할 수도 있다. 우리가 실외 스포츠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한, 그러한 불평등은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경기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누가 ‘득’ 혹은 ‘실’을 보게 될지 미리 알 수 없으며, 경기력의 평등한 기회를 위한 규범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떠한 특정한 분배적 절차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출발 순서는 임의적인 제비뽑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13) S. Loland(2002), 49쪽.

바람, 햇빛, 그리고 기온은 커다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어떤 조건에서의 변화가 규정된 수용가능성의 범위 내에 있다면 순수 절차적 정의가 최선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발에서의 정렬은 임의적인 제비뽑기에 의해 정해진다. 외부적 조건에서의 불평등은 날씨 변화와 위치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직접적 경쟁에서와 같이 경기장 자체에서의 변화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한 불평등이 통제될 수 있다.¹⁴⁾

그러나 그 평가가 신뢰할만하고 타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평등한 기회의 규범이 가능한 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러한 규범이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실외 스포츠에서의 외부적 조건의 불평등처럼 통제 불가능한 불평등과 관련된 것으로, 즉 “외부적 조건에서의 통제 불가능한 불평등은 선수들 위치에 대한 제비뽑기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경주 레인의 표면에서의 불평등과 같은 완전히 통제 가능한 불평등, 혹은 간접적인 스키 경기에서의 눈의 상태나 축구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바람 상태의 불평등과 같이 부분적으로 통제 가능한 불평등에 관한 것으로, 즉 “외부적 조건에서의 통제 가능한 불평등은 제거되어야 하는 반면에, 외부적 조건에서의 부분적으로 통제 가능한 불평등은 가능한 한 최대한 평등한 성취 기회를 실현하는 혼합적 절차에 의해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3. 경기수행에서의 평등

평등의 근거와 평등개념이 적용되는 3가지 수준을 구분할 수 있다. 첫

14) Ibid, 51쪽.

15) Ibid, 53쪽.

번째는 규칙들의 공동체계로서 제도의 운영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에 평등은 본질적으로 규칙성으로서의 정의이다. 그것은 규칙의 공평한 적용을 의미하며,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처리한다는 것과 같은 신조들에 따라 규칙을 일관성이 있게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로 평등의 의미는 평등한 기본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서 구체화 된다. 세 번째는 평등한 정의 보장을 받을만한 사람은 바로 도덕적 인격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도덕적인 인격은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구분되는데, 그 첫째가 자신의 선에 대한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 정의의 원칙들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효력이 있는 욕구를 가질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등한 정의는 최초의 상황의 공공적 합의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¹⁶⁾

따라서 적절하게 평등한 경우들은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게 되는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경기수행을 위한 평등한 기회의 규범’에 대해 살펴보자. 스포츠 경기의 구조적 목표는 경기수행에 따라 경쟁자들을 측정하고, 비교하며,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운동수행의 기회를 위한 규범에 따라 개인-의존적 불평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불평등을 평가할 때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도 이 문제를 마지못해 암묵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보다.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 불완전성이 개념 자체의 본질이나 정보부족 또는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남아 있는 불일치를 존중해 줄 필요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¹⁷⁾

그리고 도덕적 관점에 따른 전제 가운데 하나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이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평등이 야기된

16) J. Rawls(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504-505쪽.

17) 아마티아 센, 『불평등의 재검토』(이상호 외 옮김), 한울아카데미, 2009, 236쪽.

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타당하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대부분의 윤리 이론에서 합의된 것으로, 사람들이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불평등에 기초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 불평등하게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규제적 원리와도 부합한다.¹⁸⁾

우선 그 영향력에 있어 극히 적은부분을 차지하는 운의 결과에 따른 측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장과 (정도가 덜한) 몸무게와 관련한 신체의 크기를 들 수 있다. 키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며 어린 시절의 특별한 의학적 처방에 따른 것 이외에는 좀처럼 조작될 수 없다. 비록 우리 자신이 몸무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신체 구성은 유전적 특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몸무게는 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¹⁹⁾ “평등한 경기수행의 기회를 위한 규범”이 신체 크기에 따른 불평등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쳐야만 하는가? 신체 크기에서의 불평등은 스포츠 경기에서 적절한 불평등인가? 아니면 부적절한 불평등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경기수행에서 적절한 불평등에 대한 평가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스포츠에서는 신체의 크기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²⁰⁾ 비록 신체

18) J. Rawls(1971), p.74.

19) S. Loland(2002), p.54.

20) 예를 들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축구선수들의 키는 통상 160에서 210 센티미터 사이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우수한 단거리 주자들, 장거리 주자들, 그리고 테니스 선수들도 마찬가지이다. 축구에서 공중 공격의 경우 단신 선수보다는 장신 축구선수가 이점을 지닐 수 있지만, 60미터 단거리에서는 주자가 단신인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는 곧 이러한 스포츠들의 복잡한 기술 요건들로 인해 신체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신장이 작은 축구선수는 방향전환에서 더 빠르고 페인트에서 민첩하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더 큰 주자는 더 강하고 가속하는 힘이 더 강하며 100미터가 넘어도 스피드를 유지하기도 한다.

크기에서의 불평등들이 때때로 특정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경기수행에 대해서 체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스포츠에서는 신체 크기가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어떤 스포츠에서는 신체 크기가 중요하고 체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복싱이 그 좋은 사례이다. 이에 따를 경우 신체 크기에 따른 차이는 복싱에서 부적절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²¹⁾ 이러한 불평등은 경기수행에 대한 평가의 타당성을 약화시킨다. 신체 크기에서의 불평등이 유의미하고 체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다른 스포츠들에서도 우리는 유사한 해결책을 발견한다. 체급은 모든 격투기, 즉 레슬링, 펜싱, 유도, 가라데, 태권도, 그리고 또한 역도 등의 체력 스포츠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 크기에서의 불평등이 경기수행을 위해 동등하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거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행해지지 않는 스포츠들도 있다. 예를 들어, 야구와 농구에서 신장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NBA에서 신체 크기와 경제적 보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 투포환 경기에서 질량 가속도는 투척 거리를 위해 결정적이다. 체조의 경우에는 신체 크기에 있어 정반대 방식으로 신체는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만약 신체 크기에서의 불평등이 별다른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

21) 복싱의 경우 ‘자기방어를 위한 기술’에 따른 구성적 규칙들은 무엇이 적절한 기술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글러브가 착용되어 머리와 몸에 가격된 펀치는 득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글러브가 착용되지 않은 펀치나 벨트 아래에 가격된 펀치는 금지된다. 그러나 대체로 체중 100킬로그램의 복서는 비록 더 작은 복서가 우월한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기량을 보인다 하더라도 70킬로그램의 복서는 쉬운 경기를 할 것이다. 복싱 시합은 최소한 10초 동안 심판의 판정에 따라 한 복서가 무방비 상태로 여겨질 경우, 즉 그가 시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을 경우 결판이 난다. 신체가 큰 복서는 리치(reach)가 더 길고 펀치의 힘도 더 클 것이므로, 비교적 초보적인 기술을 가지고도 KO승을 거둘 수 있다.

한다면, 야구와 농구에서 신장과 체중이 평균 이상이거나 체조에서 평균 이하를 가진 선수들만이 그러한 해결책으로부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결책은 강제력이 없는데다가 정보가 주어진 일반적 합의를 위한 기초로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신체의 크기에 따른 불평등을 적절한 불평등으로 여길 수는 없다.

먼저 성별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성과 남성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 양성 사이에 불분명한 부분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이다. 심리적, 사회적으로 남성으로 정의된 어떤 여성은 유전적으로 말하면 여성과 유사하고 그 역으로도 그렇다. 각 성별 안에서 운동력을 발전시키는 성향에서의 차이는 성별간의 평균적 차이보다 더 크다. 여성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 일부는 의심할 바 없이 많은 남자들보다 경기수행에 있어 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²³⁾

그렇다면 만일 성별에 의한 분류가 포기될 경우 더 큰 부정의가 행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결정적인 문제는 성별에 의해 결정되는 불평등이 정말로 그 운동수행에 있어 중요하고도 체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²⁴⁾ 그리고 그 결과가 폭발적이고 최대한 체력에 크게 의존하는 역도에서 성별간의 생물학적이고 생리학적인 불평등은 매우 중요하고 체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자들은 그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불이익을 경험한다. 이러한 스포츠에서 성별에 의한 분

22) 이것은 로렌드가 제시하고 있는 도덕철학에서 비결과주의적 구성주의 전통에 따른 메타-규범으로 그의 도덕적 관점에 대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3가지 메타규범으로 제시되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메타-규범 I은 “비강제적이고 정보가 주어진 일반적 동의에 대한 기초로서 합리적으로 거부될 수 없는 규범들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23)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의 많은 외상적 역사로부터 성별에 의한 테스트 체제는 분류가 얼마나 성차별주의적 편견에 기초하는지를 보여준다. 남자에 비교하여 여자들의 단순히 가정된 생물학적 열등성에 대한 어떤 종류의 생각들이 그것이다.

24) S. Loland(2002), 58쪽.

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축구, 골프, 양궁, 그리고 사격과 같은 스포츠들은 각각의 선수들에게 서로 다른 요건들을 부과한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한 두 가지에서의 우월한 능력은 성공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기량인 것이다. 골프에서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은 본질적인 부분을 이룬다. 시먼의 지적에 따르면 여성 골퍼 페티 쉬한(Patty Sheehan)의 경우를 들면서 그녀는 세계에서 스윙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 하나로 의심할 바 없이 대부분의 최상급 남자 선수들과도 성공적으로 겨룰 수 있었다고 술회한다.²⁵⁾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사격선수 탕산(Thang Shan)은 성별을 초월한 경기에서 우승한 최초의 여성이었다. 스포츠 기술의 복잡성의 숙련도와 선수 본인의 근력이 운동수행에 지배적 역할이 적었기에, 여성들은 남성들만큼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다. 그것이 연령이었을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을까? 통계상, 절대적 기준에 따라 잘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잠재력이 힘, 스피드, 그리고 유연성과 같은 주요 운동능력의 경우 35세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생리학적 사실이다.²⁶⁾

불평등의 개인-의존적 문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두 가지 규범에 대한 종합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선수들이 가진 개인-의존적 문제들에서의 불평등과 둘째, 신체 크기와 성별과 연령에서의

25) R. L. Simon, *Fair Play, sports, Values, and Society*, Boulder, Westview Press. 1991, 20쪽.

26) S. Loland(2002), 59쪽.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모든 스포츠에서 약간 다른 경우를 이룬다. 태어나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숙은 주요 운동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인 모든 성향의 발전을 포함한다. 연령 차이는 커다란 불평등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들의 출생일에서는 왜곡된 분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린 나이에는 성숙하는 과정에서 일년 차이가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더 어린 참가자들이 그들보다 나이는 상대자들과 유사한 성취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경향이 더 큰 것처럼 보인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있어 연령에 따른 분류는 따라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차이가 경기수행에 중대하고도 체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이다. 그러한 차이는 마땅히 표준화된 체중, 신장, 성별, 그리고 연령 집단을 마련함으로써 해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포츠 경기장, 장비와 같은 물질적 자원이나 코치 등의 심리적 자원, 그리고 의학적인 보조 체계 같은 인적 자원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스포츠에서 연습하고 경기하기 위한 필요한 경제적 자원 등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개인들 간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²⁷⁾

다음으로는 경기수행의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을 논의해 보겠다. 대체로 선수들은 훈련과 시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고 아마추어 축구나 아마추어 사이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 자원에 대한 접근은 주로 무엇보다도 순위의 문제이므로 여기서의 불평등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몇몇의 올림픽 대회에서의 메달 분포에 대한 통계는 자본주의 체제인 경쟁적 서양 국가들과 이전의 동구권 국가들이 어떻게 대부분의 메달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²⁸⁾

스포츠는 국제적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작동하는 시장의 힘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 한 선수가 속하는 스포츠 시스템의 경제적 상황은 성공을 위해 결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럽 축구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명문 축구단²⁹⁾은 거대한 경제적 자원을 갖고 있고 스포츠 시장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다. 상

27) 몇 년 전 스웨덴의 알파인 팀은 훌륭하고 안정적인 눈의 조건과 광범위한 알파인 시설을 가진 스웨덴 북부 지역인 Tarnaby 출신의 선수들이 지배적이었다. 노르웨이의 밴디 선수들은(밴디는 공을 치기 위한 스틱을 갖고 아이스 스케이트를 신고서 경기하는 팀 대항 구기이다) 모두 중앙의 남동부 지역 출신이다. 그 나라의 다른 곳에서는 시설도 없고 그 게임을 하는 전통도 없다.

28) S. Loland(2002), 61쪽.

29) 여기에는 영국의 Manchester United와 Chelsea, 독일의 Bayern Munchen, 이탈리아의 Juventus와 Milan, 그리고 스페인의 Barcelona와 Real Madrid 등을 꼽을 수 있다.

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가진 팀들은 부유한 팀들과는 평등하게 경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평등한 기회를 위한 규범’은 높은 경기 수행에서 자원의 접근에 따른 불평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결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의 역사적 기원은 19세기 영국 스포츠의 아마추어정신의 개념³⁰⁾에서 찾을 수 있다. ‘아마추어’라는 어원에 기초하여 아마추어는 활동 그 자체와 관련된 경험적 가치로 인해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스포츠 자체를 위한 스포츠에 대한 사랑을 갖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중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스포츠의 전문화와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아마추어 정신에 대한 규칙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아마추어’라는 단어 자체가 1974년 올림픽 현장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프로선수에 불리한 모든 규정들이 사실상 폐지되었다.³¹⁾ 오늘날 아마추어 정신에 대한 전통적 규칙들은 매우 엄격하고, 온정주의적이면서 다소 비현실적인 것처럼 비쳐진다. 그것의 역사가 경기 상황 외적으로 선수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규칙의 집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아마추어 규칙들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이른바 노동계층 출신의 선수들을 제외시킴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³²⁾

과학기술의 측면에서도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한 가지 방안은 표준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어떤 스포츠에서는 장비의 표준화에 대한 오랜 전통을

30) ‘아마추어’는 라틴어 amare에서 나온 말로 ‘사랑하는 사람’ 혹은 ‘친구’ 그리고 ‘사랑’을 뜻한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어떤 개별적인 주제나 관행을 사랑하는 사람을 묘사한다.

31) 국제 농구 연맹(FIBA)은 미국 NBA의 억만장자들이 앵골라,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리투아니아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팀들과 경기하도록 허용하였고 단 한 게임도 패배하지 않고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32) S. Loland(2002), 62쪽.

갖고 있다. 투포환, 투창, 원반과 해머던지기에서 장비는 모든 선수들에게 동일하다. 전통적으로 스키 장비를 준비하고 왁스칠하는 기술은 스키 타기의 전략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고, 따라서 경기 수행의 평가에서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평등한 경기수행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범을 적용한다면 모든 선수들에게 스키장비, 준비 전문 기술, 준비 재료 등에 대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³³⁾

4. 경기 수행에서의 불평등

우리의 논의는 스포츠나 어디에서든 결과에 불평등이 불공평이나 부당성을 수반한 우선권과 대등하게 되어서는 안됨을 제시한다. 만약 희소한 이익에 대한 차등적인 배분이 운동선수들이 우리가 소비자라 비평가로서 공유하고자 하는 스포츠의 내부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면 성공적인 사람이 운이 덜 좋은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의무를 수행하는 한 불평등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³⁴⁾

따라서 적절하게 불평등한 경우들은 불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 적절한 불평등과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주요 근거는 경기수행 능력이다. 경기 수행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경쟁적 이점의 분배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야기 시킨다. 가장 빠른 단거리 주자는 다른 선수들을 리드하며 그들보다 결승선까지의 거리가 빠른 속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것

33) 모든 스키선수들은 동일한 밑면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스키를 사용해서 경기해야 한다. 오늘날 첨단 스키 제조기술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외부적 조건에서의 통제 불가능한 불평등은 선수들 위치에 대한 제비뽑기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규범에 적절한 외부조건에서의 통제 가능한 불평등을 처리하는 방식과 일치되도록 그것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34) 로버트 엘 시몬, 『스포츠와 사회가치』(여인성 외 옮김), 보경문화사, 1995, 158쪽.

이다. 축구팀은 골을 기록하여 최종 순위에 결정적일 수 있는 이익을 확보한다. 그러나 경기수행에 근거한 이점은 불평등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간혹 선수들은 공정성을 어기고 공유된 정의로운 에토스를 위반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불공정한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으로 경기 규칙들은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 그리고 이익과 불이익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한다. 동시에 ‘경기 수행’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듯이 서로 다른 스포츠들에서 운동수행의 개념은 어떤 공통의 근거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인 대화나 대중매체에서 그 해의 선수가 누구인지, 누가 최고의 선수인지, 어떤 스포츠에서 누가 신기록을 세웠는지 등에 관해 끊임없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경기 수행의 기본 요소들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도덕적 관점에서 그에 대한 가능한 해석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제기되는 물음으로는, “경기 수행의 기본 요소들은 무엇인가?”, “어떤 요인들이 그러한 경기수행을 가능하게 하는가?” 등이 될 것이다. 선수들은 다양한 인간적 능력과 기량을 보여준다.³⁵⁾ 물론 경기 수행의 총체적인 특성을 완벽하게 포착하기란 불가능하다. 스포츠에서 좋은 경기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유전적 성향은 통상 ‘재능’으로 불린다. 비유전적 요인들은 ‘환경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관심은 개인 자신들에 의해 보상되거나 혹은 강화될 수 있는 경기 수행과 연관된

35) 예를 들면,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 웨인 그레츠키(Wayne Gretzky)는 스포츠에서 전설적인 인물로서 빠른 스케이팅과 펙(puck)을 다루는 솜씨는 고도의 기술적 조화를 보여주었다. 게임에 대한 그의 전략적 이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된다. 그의 움직임과 패스는 다른 선수들을 무력화시키고 득점을 올리는데 있어 놀랍고도 효과적이었다. 그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중요한 시합에서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경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훌륭한 선수들처럼 그레츠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강도 높게 훈련할 수 있었다. 또 최근의 78회 동아마라톤 경기에서 이봉주는 38세의 나이에도 2시간 8분 4초로 당당 1위를 차지한 것도 좋은 예라 하겠다.

일련의 불평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에게 다소 유전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나 성숙과 연관된다. 물론 여기에서는 일반적 능력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경험에 의해 학습되는 것과 특수한 환경적 자극, 혹은 소위 ‘기량’에 따른 결과이다. 통상 재능은 경기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전적 성향들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경기 수행이 주요 운동능력의 증진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력, 인내력(국부적 근 지구력과 심장혈관 지구력), 유연성(관절에서의 동작의 부드러움), 속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운동능력의 성공적인 실행은 가령 감각, 동기, 감성, 인지, 개성과 연결된 것들과 같은 특정한 일반적 정신 능력의 작용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스포츠에서의 재능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해당 스포츠에서 운동수행과 관련된 표현형(phenotype)을 성장시키는 개인의 유전적 성향과 ‘자연적 운’에 의한 재능의 분배는 임의적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재능이 경기 수행에 유의미하고 체계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스포츠는 다른 재능을 요구한다는 것을 안다.³⁶⁾

그리고 훈련을 통한 적절한 능력의 발휘는 기량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경기의 기량은 최대의 확실성과 시간과 에너지의 극소화와 이에 따라 최대의 결과를 야기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경기능력은 기량 발전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기량은 스포츠의 임무와 도전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 따르면, 감각과 인지를 통해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의 특별한 임무, 그리고 이전의 경험, 학습 그리고 기억에 기초한 행동을 지각하고 해석하게 된다.

물론 숙련된 스포츠 기술은 특정한 스포츠 상황에서 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

36) S. Loland(2002), 67쪽.

다.37)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경기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한다.38) 예를 들어, 신체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법들로 자기-지향적 이완과 생체 자기제어와 같은 것이 있고 인지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법들로 이미지 기술, 목표 설정 등이 있다. 어떤 점에서, 기술적 기량과 전략적 기량 사이의 구분은 상당 부분 자의적이다.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좋은 기술과 좋은 전략은 함께 진행된다. 노련한 탁구 선수는 상대 선수의 샷을 미리 ‘파악 한다’, 훌륭한 권투선수는 직관적으로 어퍼컷을 예상하고 제때에 움직인다. 따라서 봄파(Bompa)가 지적했듯이, ‘전략은 선수의 기술과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39) 하지만 논의의 목적상 좀 단순화해서 전략은 스포츠-고유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대안적 해결책들 간에 인지적 선택을 다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능과 환경적 영향에 따른 불평등은 부적절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평등주의적 해석으로 선수들 사이에서 경기수행 잠재력의 완전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전적으로, 완전하게 동일한 개인들은 복제 기술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세포 분화와 전문화는 항상 약간은 다를 것이고 이것은 일관성 쌍둥이의 경우에서조차 그러하다.40) 그것이 환경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라 해도 완전한 평등은 가능하지 않다.

스포츠 경기의 구조적 목표는 경기수행에 따라 어떻게 측정하고, 비교하고, 순위 매기든지에 대해 참여 당사자들 사이에 공유된 이해에 따라

37) D. Martin et al.(1991), *Handbuch Trainingslehre, Schorndorf: Hofmanp.*45. (S. Loland, 2002, 70쪽. 재인용)

38) R. S. Weinberg and D. Gould(1999), *Foundations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Champaign, III ; Human Kinetics.* 221~350쪽, (S. Loland, 2002, 40쪽. 재인용)

39) T. O. Bompa(1994), *Theory and Methodology of taining. The Key to Athletic Performance(3rd ed)*, Iowa : Kendall/Hunt. 61쪽.

40) S. Loland(2002), 72쪽.

논의된다. 따라서 스포츠 경기는 능력 주의적 실천이다. 전적으로 요행에 의한 게임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 고로 이러한 해석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면, “재능에 따른 불평등은 적절하지만, 환경적 영향에 따른 불평등은 부적절하다.”는 해석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⁴¹⁾

그리고 경기력에서의 모든 불평등은 신체 크기, 성별, 그리고 나이에서의 불평등과 똑같은 근거를 가질 것이다. 나아가 모든 미래의 경기는 자연의 복권과 세포의 분화·전문화의 무작위 과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를 요행에 의한 경기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 즉 “재능에 따른 불평등은 부적절하고 (환경적) 영향에 따른 불평등은 적절하다”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⁴²⁾

지금까지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운동선수라는 전제하에 그들이 정당하게 책임질 수 없는 불평등에 기초해서 선수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경기 수행’에 대한 앞의 해석은 도덕적 전제를 염두에 둔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의 해석, 즉 “재능과 환경적 영향 모두에서의 불평등이 적절하다”로 수정되어야만 할 것이다.⁴³⁾ 왜냐하면 평등의 규범이 제시하고 있듯이 각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불평등을 제거하거나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능력 주의적인 구도를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에서 요행과 행운을 제외시키고 선수들의 자발성과 이성적으로 선택된 훈련은 도덕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평등 규범의 틀 안에서 경기력의 근간이 되는 유전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지식과 통찰은 개개인을 통제하거나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변화를 육성하고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다양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동공학적인 관점으로 여길

41) Ibid, 73쪽.

42) Ibid.

43) S. Loland(2002), 74쪽.

수 있다.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의 특정한 삶의 방식이 다른 모든 방식보다 낫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롤즈의 과정-지향적 관점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간은 그들의 실현된 능력(그들의 타고난 혹은 훈련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즐기며, 이러한 즐거움은 그 능력이 더 많이 실현되거나 그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증가한다.”⁴⁴⁾

이러한 롤즈의 입장은 개개인의 차이에 대한 가치부여와 그 존중을 함축하고 있다. 앞에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해석인 “재능과 환경적 영향에 따른 불평등은 적절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성과 자발적 선택의 잠재력을 지닌 도덕적 행위자로서 인간에 대한 풍부한 방식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경기 수행’에 대한 해석에서 논의해야 할 조건 하나가 더 있다. 스포츠 경기는 롤즈가 일반적인 ‘자연적 의무’라고 부르는 것, 즉 모든 인간적 실천들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규범의 틀 속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⁴⁵⁾ 개개인에 있어서 한 가지 기본적인 자연적 의무는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다.

스포츠가 생물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스포츠는 우리가 다양한 지향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것에 참여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에게 있어 스포츠의 가치가 그것의 잠재적 위험성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스포츠에서 부상과 위해를 논의할 때 종종 제기되는 또 다른 쟁점이 있다. 많은 스포츠들이 격렬한 신체 접촉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선수들은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기도 한다. 그렇다면 도덕적 관점에서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44) J. Rawls(1971), 42쪽.

45) Ibid, 108쪽.

도덕적 관점에서 고의로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특히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을 위한 존중을 요구하는 비결과주의적 관점에 따라 결코 옹호될 수 없다는 것이다.⁴⁶⁾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금지에 대한 요구를 권투의 가치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오해인 동시에, 이해 당사자인 권투선수 자신들의 관심이나 이익에 대한 지배적 비난으로 여긴다. 결정적인 문제는, “용기, 인내력, 불굴의 투지와 같은 접전에서 펀치에 의존하는 것을 권투의 가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와 동일한 가치들이 보다 덜 위험한 행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잠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가?”와 같은 물음들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에서 불평등한 대우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에토스의 틀 안에서 경기력에서의 불평등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에토스로는 첫째, “재능은 적절한 능력과 기량의 성장을 위한 유전적 성향에 기초한다”는 것과 둘째, “적절한 능력의 개발과 기량의 학습을 통한 재능의 현실적 실현에 기초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자신과 타인을 불필요한 위해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기본적 규범에 일치한다”는 것이다.⁴⁷⁾

5. 경쟁에서의 불평등한 대우

불평등한 대우는 각 경우들 간의 실제적인 불평등에 따라서 합당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스포츠에서의 차별 대우는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으며, 불평등한 대우는 결코 좋은 경기수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형식을 갖지 않는다.

46) R. L. Simon(2004), 54쪽.

47) S. Loland(2002), 78쪽.

그럼으로 전형적으로, 스포츠에서의 차별 대우는 이득의 차별적 분배라는 형식을 지닌다. 따라서 “경쟁자간에 이익의 분배에 따른 차별 대우는, 경기 수행에 있어 실질적 불평등에 따른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⁴⁸⁾고 말할 수 있다. 차별 대우의 또 다른 주된 범주가 있는데 그것은 공유된 정당한 스포츠 에토스에 대한 지지를 규정해 주는 것이다. 그 에토스에 따라 어떤 행동은 금지되고, 벌칙들이 정해지게 된다. 그 규칙의 위반은, 제거되어야 하거나 보상되어야 하는 것과 무관한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면 스포츠에서 이익을 평가하는 과정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정확한 물리-수학적 측정에 기초한 이익과, 스포츠-고유의 이익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경기 과정에서, 그리고 경기가 끝난 최종적인 공식 순위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이익을 구별할 수 있다.⁴⁹⁾ 이러한 이익은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확보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의 팽팽한 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우승하기 위해서는 기량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든 행운이 요구된다. 레셔는 순수한 우연적 과정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가 정의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그것은 마치 타고난 운명과도 같이 예측할 수 없고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다.⁵⁰⁾ 행운은 다양한 방식으로 오게 되는데,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고 어떤 것인지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행운은 ‘우연하게’ 오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불운에 대한 바흐터(de Wachter)의 정의에 따르면, 이것들은 ‘... 선수의 기량과 노력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48) Ibid, 83쪽.

49) Ibid, 85쪽.

50) N. Rescher(1995), *Luck The Brilliant Randomness of Everyday Life*, New York: Farra, Straus, Giroux, 19쪽.

의도된 행위 사이의 불일치'의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⁵¹⁾ 그렇다면 문제는 운(運)이 좋고 나쁨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 상대는 경기를 잘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운을 경험할 수 있다. 보다 잘하는 축구팀이 상대 팀의 행운에 힘입은 쉬운 득점에 의해 적어도 한번쯤은 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불공정한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도덕적 승리자'로서의 손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늘 있기 마련이다.⁵²⁾

삶의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불운의 영향은 스포츠에서도 역시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스포츠에서 행운의 역할에 대한 몇몇 가능한 해석이 있다. 그 대표적인 입장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모든 스포츠에서의 기술적인 운동수행과 이익의 확보는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는 견해이다.

둘째, 스포츠에서 실제적 수행과 이익의 확보 사이를 일치시키려는 관점이다. 이는 과학적 관점에 따라 '실험'의 타당성을 증대하기 위해 이익의 분배를 보다 폭넓게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거리 경주의 경우 각 개별 선수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시간 단위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⁵³⁾ 이러한 합리주의적 견

51) de Wachter(1985), "In Praise of Chance. A Philosophical Analysis of the Elements of Chance in Sports",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XII*: 52-61, 55쪽.

52) S. Loland(2002), 88쪽.

53) 만일 축구의 경우는 농구의 사례에 따를 수 있다. 벌칙에 의한 골은 1점이 주어질 수 있고, 페널티구역 안에서 2점이, 그리고 페널티구역 밖에서의 벌칙에 의한 골은 3점이 주어질 수 있다. 테니스에서 점수는 경기의 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작화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른바 심판위원회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보다 긴 기간에 기초하여, 수행의 보다 진전된 조작화는 수행 측정의 정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한 구별을 통해, 측정의 단계는 순서 단계로부터 간격의 단계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해에 따른 궁극적인 해결책이란, 모든 스포츠에서 그 수행에 대한 정확한 물리-수학적 측정일 것이다.

셋째, 행운이 미치게 되는 영향은 경기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오히려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력 측정을 위한 잘 조율된 눈금과, ‘부정확한’ 스포츠-고유의 이점은, 결과에 대한 개방성과 불확실성을 산출하는데, 이는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선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포츠 고유의 목적과 연관된 경기에서 정의에 대한 특정한 구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의 고유한 가치는 엘리트적 정의, 기회와 행운과 사이의 미묘한 결합으로 드러난다. 행운의 영향에 대한 가능성은, 마치 합리주의적 구도에서와 같이, 극소화되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최대한으로 활용되어야 한다.⁵⁴⁾

경기 수행에 있어 “경쟁자간에 이익의 분배에 따른 차별 대우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회와 운과 같은 실질적 불평등에 따른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스포츠의 평등성에 관한 논의에서 행운이 매우 중요하지만 조직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결코 안 된다할 것이다.

앞에서 스포츠의 이익 분배에 대한 두 가지 근거에 관해 언급했다. 하나는, 정확한 물리-수학적 단위에 의한 실행적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스포츠-고유의 이익이라는 점에 대한 조작화(operationalization)이다. 행운과 같은 비엘리트(실력이 아닌)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하더라도, 차별 대우와 실제적 평등간의 합리적인 일치점의 마련이라는 미덕에 따라, 앞의 둘 모두는 “경쟁자간에 이익의 분배에 따른 차별 대우는, 경기 수행에 있어 실질적 불평등에 따른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⁵⁵⁾” 또한 행운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행운의 영향은 경험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경기의 개방성과 수행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인간의 서로 다른 재능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해야하

54) Ibid.

55) Ibid, 90쪽.

기 때문에 행운이 경기수행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경쟁자간에 이익의 분배에 따른 차별 대우는, 경기 수행에 있어 실질적 불평등에 따른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라는 규범이 갖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즉, “행운은, 선수의 수행에 따른 측정과 비교, 그리고 순위에 대해 중대하고 조직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평가에 대한 가능성은 최대한 제거되어야한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6. 맺는말

경쟁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기의 공정성일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경기를 스포츠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등이 관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공정성은 공평성, 객관성, 합리성을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 정의의 한 덕목이다. 그리고 평등 역시 정의의 한 속성이거나 본질적 내용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적 개념으로 공정성과는 차별화 된다. 따라서 당위와 사실의 조화가 합의를 이루는 데에서 훌륭한 스포츠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고로 스포츠 경기가 공정한 것은 그 경기의 조건이 평등하게 유지되고 불평등한 경우는 불평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경우인 것이다. 물론 무엇을 평등한 것으로 여길 수 있으며, 또 불평등하다고 했을 때 그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실제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하게 평등한 경우들은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적절하게 불평등한 경우들은 불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고 그리고 불평등한 대우는 각 경우들 간의 실제적인 불평등에 따라서 합당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참고문헌

- J. 롤즈,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황경식 외 옮김, 서광사, 1997.
- J. 롤즈, 『사회정의론』, 황경식 역 옮김, 서광사, 2001
- 브라이언 베리, 『정의론』(이용필 옮김), 신유, 1993, 277쪽.
- 스튜어트 화이트, 『평등이란 무엇인가』, 강정인, 권도혁 옮김, 까치, 2016.
- 아마티아 센, 『불평등의 재검토』, 이상호·이덕재 옮김, 한울아카데미, 1999.
- M. 왈져,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원섭 외 옮김, 철학과 현실사, 1999.
- 여인성, 함정혜, 『스포츠와 사회가치』, 보경문화사, 1995.
- 이영희, 『정의론』, 법문사, 2005.
- 황경식, 『사회윤리』, 철학과 현실사, 1995.
- 황경식 외 9인, 『공정과 정의사회』, 조선뉴스프레스, 2011.
- A. MacIntyre, *After Virtue(2nd.e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5.
- B Gert, *Morality: A New Justification of The Moral Rule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D'Agostino, F. (1981) "The Ethos of Games."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VIII*: 7-18.
- H. L. A. Hart, *The Concept of Law*, Oxford ; Clarendon Press, 1961.
- H. L. A. Hart, "Between Utility And Rights," Alan Ryan (ed..) *The Idea of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J. Rawls, "Justice as fairness," *justice and Social Policy*, ed. Frederick Olafson,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61.
-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M. Walzer, *Sphrees of Justice*, Oxford : Basil Blackwell, 1983.
- P. J. Arnold, *sport, Ethics & Education*, Cassell, 1997.
- R. L. Simon, *Fair Play, sports, Values, and Society*, Boulder, Westview Press. 1991.

- S. Loland, *Fair Play in Sports*, London & New York, 2002.
- S. Loland & M. Mcnamee, "Fair Play And The Ethos of Sports: An Eclectic Philosophical Framework,"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XXVII*, 2000.

Fairness and Equality in Sports

Yim, Suk-Won (Catholic Kwandong Univ.)

Fairness means reasonability and equity that is unbiased. Therefore, it is the main notion of justice supposing legitimacy that implies righteousness. In sport events, fairness matters because it is directly associated with a fair game. If a sport game is not fairly played, it should be the model of biasness in game environment and also artificial injustice. Accordingly, to play a fair game, the rules, norms, and systems should be fair, and equality should be maintained. In other words, in sport events, equality is a condition to play a fair game. The outer environment, for example, climate conditions, and also, artificial conditions like the stadium should be fairly given. Also, unfairness to impose inequality of opportunity on competitors should never be practiced. Accordingly, this thesis is going to suggest conditions for equality to play a fair sport game and also aggressively identify unequal treatments on competitors. In other words, this study will highly stress equality in sport games and also morality on games and players as voluntary participants. The orientation and purpose of this study is also on the point that in competitions, players should be treated as voluntary as well as ethical competitors.

Key words: Fairness and Equality in Sports, justice, sport game

스포츠에서의 공정성과 평등 / 임석원

임석원 e-mail: siscia@naver.com

투 고 일	2017년 04월 21일
심 사 일	2017년 05월 03일
게재확정	2017년 05월 17일